

에이스 정찬헌 있음에 광주일고 정상 보인다

4회초 구원등판...6이닝 6K 무실점 쾌투 중앙고에 3-1 역전승...오늘 대망의 결승전

■ 대통령배 고교야구 준결승

‘호남 야구 명문’ 광주제일고가 제41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강호’ 중앙고를 꺾고 5년만에 대회 결승에 진출했다.

광주제일고는 2일 서울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린 준결승에서 에이스 정찬헌의 호투와 장단 9안타를 적시에 터뜨려 중앙고에 3-1로 역전승을 거뒀다.

광주제일고는 이날 승리로 2002년 천안북일고를 제압하고 우승한 뒤 5년 만에 대통령배 결승에 올라 통산 5번째 우승에 도전하게 됐다.

지난 해 10월 열린 제87회 전국체전 우승팀인 광주제일고는 이번 대회 3경기에서 1실점만 허용하는 막강한 투수력을 앞세워 결승에 올랐다.

광주제일고는 1회초 선발투수 장민제가 2사 1루에서 중앙고의 4번 타자 김민에게 2루타를 맞아 선취점을 내준 뒤 4회까지 상대 좌완 투수 민성기의 호투에 놀려 무득점에 그쳤다.

그러나 5회말 선두타자 김태형의 중전안타와 정승인의 희생번트로 1사 2루의 찬스를 잡은 뒤 한희준의 좌익선상 2루타로 1-1 동점을 만들었다.

광주제일고는 계속된 1사 2루 득점찬스에서 허경민의 우익수 키를 넘기는 적시타로 역전에 성공했고, 이철우의 행운의 3루수 앞 내야 안타로 1점을 더 보태 3-1로 승부를 뒤집었다.

광주제일고의 우완투수 정찬헌은 4회초 장민제를 구원등판한 뒤 6이닝 동안 삼진 6개를 속아내며 안타 1개, 사사구 2개로 무실점으로 막아 승리투수가 됐다. 한편 광주제일고는 3일 오후 6시30분 같은 장소에서 결승전을 치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일 서울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린 대통령배 고교야구 광주일고와 중앙고의 준결승 경기에서 광주일고 투수 정찬헌이 역투하고 있다. (일간스포츠 제공)

시즌 첫승 언제 올리나?

늘 30명 안팎의 선수가 출전하면서도 아직 시즌 첫 우승이 없는 미국여자프로골퍼(LPGA) 투어 ‘코리아 시스템스’의 ‘집단 무력증’은 언제쯤 풀릴까.

LPGA 투어 한국 선수들은 올해 7개 대회를 치르는 동안 단 한 차례 우승도 올리지 못했다. 지난해 초반 7개 대회에서 3승을 거둔 것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부진이다.

새로운 ‘골프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의 기세에 폴라 크리머, 모건 프레스, 브리타니 린스킵 등 미국출신 신예들의 약진에 밀린 탓이기도 하지만 우승에 대한 강한 집념이 사라졌다는 파급효과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선수들은 “기다려달라”고 말한다. 초반 페이스가 너무 좋았던 지난해와 비교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다.

8승을 거둔 2005년에도 한국 선수들의 시즌 첫 우승은 5월30일에야 나왔다.

개막전부터 10개 대회를 치르도록 한 번도 승점보를 전하지 못했지만 시즌 11번째

한국여자프로골퍼들 올 LPGA 7개 대회서 단 한번 우승도 못해

대회인 코닝클래식에서 강지민(27·CJ)과 이미나(26·KTF)가 1, 2위를 차지하면서 첫 우승을 따낸 뒤 메이저대회 2승을 포함해 챔피언 7명이 쏟아졌다.

또 하나 ‘믿는 구석’은 여름 동부 시리즈가 곧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LPGA 투어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은 그동안 볼철 서부지역에서 열리는 대회보다는 여름철 동부에서 개최되는 대회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다.

LPGA 투어경력 최고참인 박세리(30·CJ)는 “한국에서 습도가 높고 무더운 여름철에 경기를 많이 치른 때문인지 건조한 서

부에서는 제 컨디션을 발휘하기 어렵다”면서 “동부는 여름날씨가 한국과 비슷하다. 레이아웃도 한국 골프장과 흡사하다”고 설명했다.

박세리가 수집한 우승컵 23개 가운데 대부분이 여름철 또는 동부에서 나왔고 다섯 차례 메이저대회 우승 역시 브리티시여자오픈을 뺀 네 차례가 이 지역에서 수확됐다.

이 때문에 5일(한국시간)부터 오를라호마주 브로큰에로우 시터릿지골프장(파71·6천602야드)에서 사흘 동안 열리는 썸그립 챔피언십은 ‘동부 지역 여름철 시리즈’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중서부 오를라호마주의 브로큰에로우는 동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요즘 날씨가 한국의 여름만큼 습도가 높고 덥다.

이 대회 이후 일정은 버지니아,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메릴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델라웨어 등 동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은희 8언더 ‘코스레코드’ 단독 선두

KLPGA 휘닉스파크클래식 1R

한국여자프로골퍼(KLPGA) 기대주 지은희(21·캘러웨이)가 휘닉스파크클래식 첫날 코스레코드 타이 기록을 세우며 단독 선두로 나섰다.

지은희는 2일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골프장(파72·6천264야드)에서 열린 1라운드

에서 버디를 9개나 쓸어담는 불꽃타를 휘둘러 8언더파 64타를 때렸다.

64타는 지난 2003년 이곳에서 열렸던 하이마트 인비테이셔널 1라운드 때 전미정(25·투어스테이지)이 세운 코스레코드와 타이 기록, 67타를 친 한민지(22)를 3타차로 따돌린 지은희는 2005년 데뷔 이후 미뤄왔던 생애 첫 우승의 기회를 잡았다.

통산 3승 가운데 2승을 같은 골프장에서

거취 ‘휘닉스파크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희영도 4언더파 68타를 뽐내며 공동 3위에 올라 대회 2연패 가능성을 활짝 열었다.

3언더파 69타를 쳐 공동 6위에 오른 최나연과 안선주(20·하이마트)도 우승 후보로서 손색없는 1라운드를 치렀다.

한국여자프로의 ‘지존’으로 자리잡은 신지애(19·하이마트)는 2언더파 70타를 쳐 공동 13위에 머물렀다.

올해 1라운드 성적이 유난히 좋지 않아 애를 먹었던 신지애는 모처럼 언더파 스코어를 내긴 했지만 ‘슬로 스타터’의 버릇은 벗어던지지 못했다. /최재호기자 lion@

“패밀리카 타고 야구장 가자”

KIA 주말 홈경기 가족석 구입편 차량 제공

KIA타이거즈가 5~9월 토, 일요일, 공휴일 홈경기때 ‘타이거즈 패밀리카 타고 야구장 가자’ 행사를 실시한다.

이 행사는 오피러스, 소렌토, 로체, 등 지정석내의 패밀리석을 구입하는 가족에게 각각 해당되는 차량을 제공, 집과 야구장을 왕복

운행하는 서비스다. 참여가족에겐 피자, 와인, 맥주, 다과 등도 제공된다. 광주에 거주하는 4인 이하 가족이면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비용은 6만원.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난 1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KIA-롯데전 5회초 1사 1루에서 KIA 이재주가 펜스를 맞는 안타를 때리고 홈에서 세이프되고 있다. /연합뉴스

“희석이 와도 밀릴것 없다”

KIA 이재주, 3할타에 그라운드 홈런 등 팀 상승세 주도

“흥, 최희섭 올테면 오라지.”

2007 시즌 시작과 함께 최희섭(28·탐파베이)의 KIA 복귀설이 터졌다. 예상 포지션은 지명타자, 바로 이재주(34·KIA·사진)의 자리였다.

KIA 구단내부에선 위협을 느낀 이재주가 밤잠마저 설친다는 말이 떠돌았다. 당시 말수도 부족 풀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재주는 더욱 힘을 냈고, 3할타를 때려 내며 자신의 견재함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4월말이 되면서 최희섭의 5월 복귀설이 또 주요 언론매체를 장식했다. 구체적인 계약금액까지 나왔고, 최희섭이 돌아오면 이재주가 밀려날 것이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여졌다.

결국 그동안 잘 버티던 이재주도 흔들렸다. 지난달 29일 광주 한화전까지 최근 5경기에서 18타수 1안타 타율 0.056을 기록할 정도로 부진의 늪에 빠졌다.

항상 주전자리를 갈뒀던 그로서는 자리 위협은 부담감일 수밖에 없었다. 1992년 강릉고를 졸업하고 태평양에 입단한 이재주는 ‘만년후보’였다. 이재주의 포지션은 포수. 그러나 태평양 및 현대에서는 장광호·박경완에 가려 기회를 잡지 못했다. 2002년 KIA로 이적했지만 김상훈이 버티고 있었다. 이재주는 고민끝에 포수 마스크를 벗고, 소질이 있었던 방망이를 들었다. 하지만 마태영(현 LG)의 그늘에 가려 주전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초반엔 대타요원으로 활약했다. 통산 17개의 대타 홈런을 때리는 등 ‘대타 거포’로 이름을 떨쳤다.

그리고 2006년, 입단 15년차만에 풀타임 주전 지명타자로 올라섰고, 타율 0.284·13홈런·59타점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남겼다. 데뷔 15년 만에 역대 연봉(1억원)도 돌파했다.

의욕적으로 2007년을 맞이했지만, 시즌 시작 직전엔 ‘용병’ 서튼과 지명타자 자리를 놓고 경쟁했고, 또 최희섭이란 번

수가 그의 자리를 위협했다.

그러나 ‘만년후보’에서 프로 데뷔 15년만에 주전을 꿰찬 ‘인내의 사나이’ 이재주는 다시 승부근성을 되살려냈다. 자

신을 지킬수 있는 길은 실력뿐이기 때문이다. 이재주는 지난

1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전에서 팀이 4-0으로 앞서던 5회 초 1사

1루에서 중견수 키를 넘기는 생애 첫 그라운드 홈런을 때리는 등 3타수 3안타, 3타점으로 맹활약했다. 팀도 8-1로 대승했다.

1루를 돌면서 롯데 중견수 김주찬이 공을 잡으려다 펜스에 부딪혀 쓰러진 것을 확인한 이재주는 전력질주를 시작해 3루를 돈 뒤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으로 홈으로 들어오는 파이팅을 발휘하기도 했다.

이재주는 이날 활약으로 타율도 3할대로 다시 끌어올렸다. 1일 현재 타율 0.307(75타수 23안타), 홈런은 4개, 타점도 팀에서 가장 많은 15타점을 올렸다.

이재주는 현 페이스만 유지한다면 주로 6번 타자로 기용돼 장타력이 있는 홍세완, 출루율이 높은 래리 서튼의 뒤를 받치며 팀 공격의 선봉에 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주는 “비디오 분석과 함께 특타를 한 뒤 타격감도 살아나고 있다”면서 “팀내 지명타자 자리를 지

키는 길은

실력 뿐”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